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36
----------	------

발의연월일 : 2024. 7. 29.

발 의 자 : 이건태 · 양문석 · 김재원
정성호 · 이기현 · 김성환
박희승 · 김현정 · 강유정
김기표 · 황정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상도례 규정은 친족 간 관계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친고죄로 적용하도록 하여 가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형사피해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며, 지적장애인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재산범죄에 대해서까지도 예외없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또한 2024. 6. 27. 헌법재판소도 직계혈족,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형법」 제328조제1항은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해진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규정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 범해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에서 고소 또는 피해자의 의사)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범해진 제323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친족 간에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第328條(親族間의 犯行과 告訴)</u></p> <p>① <u>直系血族, 配偶者,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配偶者間의 第323條의 罪는 그 刑을 免除한다.</u></p> <p>② <u>第1項以外의 親族間에 第323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u></p> <p>③ <u>前2項의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前2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u></p>	<p><u>제328조(친족 간의 범행에서 고소 또는 피해자의 의사)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u></p> <p>②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범해진 제323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친족 간에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